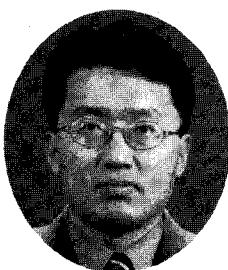


‘13억인의 우리농업’ 질주와 득과 실은?

중국의 WTO가입은 15년동안 노력해온 결실이다. 이는 세계무역질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국 농업에 큰 도전으로 다가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중 수출 가능성 확대 등 일부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클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임정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 서비스 등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는 뉴라운드 출범을 위해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기간중인 2001년 11월 10일, 중국의 WTO 가입이 확정됨으로써 중국은 지난 15년 동안의 WTO 가입노력 결과를 실현, 143번째 WTO 정식회원국이 되었다. 13억의 방대한 인구와 함께 세계 6대 무역대국인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 무역질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국 농업에 큰 도전으로 다가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양국간의 무역이 급증하고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는 등 양국은 상호 중요한 경제파트너로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경제문제를 떠나 정치·외교적으로도 전통 우방 못지 않은 우의를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한·중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경제발전을 계속해 나가면서 더욱 심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양국의 교역은 크게 증가하여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 제3의 교역대상국이며, 한국도 중국의 제4의 무역대상국



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중국의 시장개방과 무역제한의 완화에 따른 대중수출 가능성 확대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 국제시장가격 상승,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등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가격 상승=수입비용상승' 부담으로 작용

우선 중국의 WTO가입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내시장에서 여타 회원국들처럼 중국산 농산물에 최혜국(MFN) 대우를 인정하여 공정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이미 한·중 수교 이후인 '92년부터 중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있어 추가적인 관세 인하가 불필요하며 중국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증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저가제품이나 유사상품 등이 범람할 소지가 커지면서 국내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 크다.

이외에도 중국의 지리적 이점에 따른 수송

비절감과 최근 미 달러의 강세 등에 기인하여 중국산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증대는 미국 등 기존 수출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수입선 전환을 발생시켜 중국산 농산물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WTO가입 이후 최근의 미달러 강세와 중국 통화의 평가절하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나라가 기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품목이 중국산 농산물로의 수입선 전환을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편 향후 WTO 가입의 대가로 중국이 국제적으로 약속한 관세인하 및 시장접근물량의 확대, 국영무역의 축소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는 밀, 옥수수 등 곡물 순수입국인 중국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제가격이 상승하여 이를 품목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우리의 곡물수입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밀의 경우 1999년 우리나라 밀 수입량은 4백19만 톤인데,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무역정책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밀 수입이 증가하여 밀의 세계시장 가격이 톤당 2.5달러 상승할 경우(OECD의 Aglink 모형예측) 우리나라의 밀 수입으로 인한 부담 증액분은 1천47만달러이고, 중국의 무역정책의 변화와 농업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었을 경우 중국의 밀 수입 증가로 밀의 세계시장 가격이 톤당 11.3달러 상승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밀 수입으로 인한 부담 증액분은 4천7백34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품질경쟁력 겸비, 수출시장 경합 심화

또한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회원국들로부터 무차별적 관세인하의 혜택을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 받게됨으로써 해외시장에서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일본, 미국 및 EU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나라 수출 농산물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농립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시장에 중국은 저가 농산물 위주로 수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술집약적인 품목을 수출하고 있어 수출경합이 심하지 않은 관계로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농산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농업생산기술이 급속히 향상

현재 중국은 종자 수입이나 종자 산업에의 투자를 규제하고 있는데, WTO 가입을 계기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면 우리나라의 종자 수출과 종자업체의 중국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향후 중국의 농업 원자재수요 증가의 추세에 따라 비료, 농약, 농기계 등 국산 농업 원자재 및 기계류 수출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되고 있어 머지 않아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겸비함으로써 일본 등 우리 농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경합이 우려된다. 현재 한국이 일본시장에서 중국과 경합하고 있는 품목은 김치, 백삼, 밤, 오이, 딸기, 고추, 송이버섯 등인데 이중 밤, 오이, 딸기, 송이버섯 등의 품목은 중국의 품질경쟁력이 제고될 경우 우리 농산물 시장을 잠식하여 수출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화훼와 과채류에 있어서 중국이 수출에 주력할 경우 시장잠식의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지금까지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매년 중국산 농산물 수입에 대해 여타 WTO 회원국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요 수출시장에서 양국간 경합문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중국이 WTO 회원국이 아닌 상태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장기적인 무역관계 수립과 투자계획에 소극적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은 불안한 무역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중국이 농산물 수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주요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산물과의 경합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향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보다 가속화된 경제개방 및 개혁정책의 추진은 중국내 내부기간설비 구축 및 수출확대를 위한 자본재 등의 수입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미 달러에 대한 중국 통화는 당분간 계속 평가절하 될 가능성이 큰 반면 한국의 원화는 대미달러에 대해 안정 혹은 절상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에 따라 해외시장에서 국산 수출농산물과의 경합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분야 부정요소 많아, 대응방안 마련해야

중국의 WTO가입은 우리 농업에 위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외에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한 시장개방과 무역장벽의 완화는 우리나라의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여건을 개선시킬 것이다.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따라 가공농산물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우리나라 가공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증가 및 투자기회 확대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리라 예상된다. 기존에 중국에 수출되던 위스키, 대두유, 라면, 채소종자, 저당 등 이외에 인삼제품과 삼계탕 등 가공식품 및 고추장, 된장 등 장류가 유망 품목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한 현재 중국은 종자 수입이나 종자산업에의 투자를 규제하고 있는데, WTO 가입을 계기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면 우리나라의 종자 수출과 종자업체의 중국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향후 중국의 농업 원자재수요증가의 추세에 따라 비료, 농약, 농기계 등 국산 농업 원자재 및 기계류 수출가능성도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농산물 가공기술 등 유통 분야가 비교적 낙후되어 중국입장에서는 유통 분야를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한국 관련기업의 중국 농산물 도소매시장 건설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 및 투자 등 농산물 유통산업에 대한 투자기회가 증대 될 것이다.

이외에도 국제 협상과정에서 협력 가능성 증대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식량자급을 목표로 하는 농산물 순수입국이며 향후 경제발전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중요 수입국인 한·중·일이 미국과 케언즈그룹(Cairns group)의 시장개방 압력에 공동대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현재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상당량의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지만 이것은 양자적 차원에서의 문제이고 WTO 협상과 같은 다자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우도 완전한 시장개방이 어려운 처지이므로 협상 연대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식량 순수입국들은 중국의 농산물 시장개방과 경제발전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농촌경제의 악화와 농촌 지역의 공동화, 식량안보 상황의 악화, 환경파괴 등의 자국경험을 설명함으로써 중국측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WTO 협상과정에서 중국이 기존 수입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설득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중국의 시장개방과 무역제한의 완화에 따른 대중수출 가능성 확대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 국제시장가격 상승,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등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중국의 WTO 가입은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농악정보**